세대 갈등 너머의 '영포티 혐오'

태평로

김승범
주말뉴스부장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젊은 층이 즐겨 입는 편안한 스타일의 옷)와 한정판 운동화를 착용한다' 'IT 기기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며 적극 소비한다' '최신 유행어를 잘 안다'….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는 '영포티 자가 진단 리스트'의 일부다. 영포티는 '젊은(young) 40대(forty)'라는 뜻이다. 자가 진단 결과 높은 점수가 나온 40대는 '내가 젊게 살아가는 중년이구나'라며 좋아해야 할까. 아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 영포티라는 말은 10년 전쯤 처음 등장했다. 기존 중년과 달리 트렌드에 민감하고 젊은 취향을 즐기는 40대를 긍정적으로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척하는 꼰대'라는 의미로 쓰인다. 사이버 공간에는 영포티를 조롱하는 콘텐츠가 넘쳐난다. 자가 진단 리스트도 그중 하나다. 영포티가 많이 입는 브랜드를 배 나온 중년 남성과 합성한 AI(인공지능) 이미지도 돌아다니고 있다.

영포티에 대한 조롱은 MZ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MZ 세대가 느끼는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의 반영"이라고 분석한다. MZ 세대는 고용 불안과 집값 급등, 저성장 속에서 기회의 문이 닫힌 시대를 살고 있다. 그들 눈에 영포티는 상대적으로 운이 좋았던 세대다. 사회에 진출하던 시절 지금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쉬웠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치솟기 전이었으니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있었다. MZ 세대에게 영포티는 오늘날 누리기 힘든 기회를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다진 기득권 세대다. 그런 영포티가 젊은 취향을 좇는 모습이 자기 과시처럼 비치면서 MZ 세대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많은 4050이 적극적인 커리어 개척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긍정적 이미지

'트렌디한 중년' 뜻하던 '영포티'
'젊은 척하는 꼰대' 조롱으로
MZ세대 좌절과 박탈감 반영돼
불만 키우는 구조 들여다봐야

를 쌓고 있다. 영포티들도 할 말이 있다. 이들은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다. 끝없는 자기 계발과 갱신이 생존 조건이 됐다.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낡은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현실 속에 산다. MZ 세대를 향해 "나이가 죄냐"는 항변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젊은 감각을 내세울 뿐 실제론 '꼰대'의 면모를 보이는 영포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주목할 점은 '영포티 논란'이 세대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긴장과 불안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MZ 세대가 영포티라고 비꼬는 것은 단순한 세대 공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겪는 현실적 제약과 기회 부족에 대한 불만 표출의 성격이 크다. 이들의 불만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분기까지 청년 실업률이 네 분기 연속으로 나빠졌다. 올해 연간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집값 급등에 부동산 규제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 한편으로 중년층은 AI가 몰고 오는 격변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생존경쟁의 압박 속에 청년층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세대 간에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다. 과거에도 세대 갈등이 있었지만 남은 것은 사회적 피로와 분열뿐이었다. 갈등 완화를 위해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 세대가 직면한 구조적·현실적 어려움을 줄여야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층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가, 중년층에게는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이 필요하다.

정치권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대를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모든 세대가 손을 맞잡아도 버거운 시기다. 사회 전체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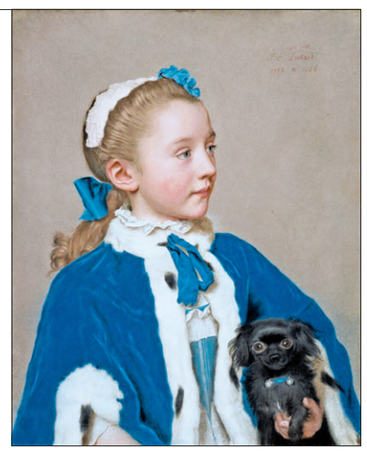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05]

스위스의 '튀르키예 화가'

화가 장 에티엔 리오타르(Jean-Étienne Liotard·1702~1789)의 부모는 프랑스 왕정의 탄압을 피해 자유 도시 제네바로 망명한 위그노(믿음을 지킨 개신교도)였다. 덕분에 그는 신분의 속박과 교회의 질서 밖에서 자라났고, 한때 이스탄불에 머물며 오스만 제국의 문화에 빠져들었다. 유럽으로 돌아온 뒤에도 튀르키예풍으로 차리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튀르키예 화가'라고 불렀다.

이국적인 색감의 파스텔로 놀랍도록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초상화를 그려내는 리오타르에게 온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1755년, 잠시 헤이그에 머물던 그에게 헤이그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판 레데-아틀로너 부인은 어린 딸 마리아 프레데리케의 초상화를 주문했다. 그녀의 남편, 즉 마리아의 아버지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군주나 다름없던 오라녜 공의 수석 시종이었지만, 불행히도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앙증맞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보드라운 파란 벨벳과 모피로 몸을 감싼 소녀의 핑크빛 얼굴에 그늘이란 없다. 이후 성인이 된 그녀는 역시 오라녜 공의 시종장 가문 판 헤이덴-레이넨스타인 백작과 결혼해 높은 신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귀족 사회는 무너졌다. 백작 부부는 권위와 관직을 모두 잃고 지방의 영지로 돌아갔다. 오라녜 공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했던 그들의 아들 로데비히는 러시아 제국 해군에 입대했다. 이후 1827년, 로데비히는 러시아 해군 제독이 되어



장 에티엔 리오타르, 일곱 살이 된 마리아 프레데리케 판 레데-아틀로너의 초상화, 1755~1756년, 양피지에 파스텔, 54.9×44.8㎝, 로스앤젤레스, J 폴 게티 박물관 소장.

나바리노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격파했다. 리오타르는 파란 옷을 입고 그림 앞에 앉은 예쁜 아이가 훗날 자기가 사랑한 세계를 무너뜨릴 아이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GPU 26만장 전기 어디서, 국가 AI 에너지 계획 수립을

경주 APEC에 참석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에 GPU 26만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현재 보유한 GPU가 4만5000개에 불과한 한국이 2030년이면 30만개를 넘어,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가 된다. 삼성·SK·현대차·네이버 등이 AI로 다시 한번 도약할 기반도 열린다.

이 거대한 '선물'에는 조건이 달려 있다. GPU를 돌릴 전기다. GPU 26만장 가동에는 냉각 전력까지 감안해 원전 1기 용량인 1GW(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안 그래도 여름, 겨울만 되면 전력 예비율 걱정을 하는 나라에 '전기 먹는 하마'인 AI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섰다. 미국은 이미 200만개가 넘는 GPU를 AI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 흐름을 피해 갈 수 없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1인 1GPU' 시대가 온다"고 전망한다. 천문학적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런데도 정부는 '감(減)원전'을 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안전을 보증한 고리 2호기의 운전 연장 허가도 미루기만 한다. AI 3대 강국이 되겠다며, 그 AI를 돌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력을 줄일 생각만 한다.

2021년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면서 기존 '녹색성장법'에 있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통째로 누락시키는 '입법 실수'를 저질렀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향후 20년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을 담는 '에너지 헌법'이다. 그런데 이 계획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로 있다. 사실상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에너지 헌법'의 근거도 없이 전력 관련 중대사를 처리하는 비정상이 반복 중이다. 이러고서 어떻게 AI 시대를 감당하나.

AI는 이념이 아니라 전기다. 즉시 고리 2호기 등 문제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태양광·풍력 등도 필요하지만 날씨 등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해 사용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요한 AI엔 맞지 않는다. '에너지법 개정안'부터 처리해 AI 시대 국가 에너지 기본 틀부터 세워야 한다.

일하려는 사람 발목 잡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나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는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요구에 택배 기사들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과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당사자인 현장 택배 기사들은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내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야간 택배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고, 95%가 "심야 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민노총은 새벽 배송이 '과로와 착취의 상징'인 듯 주장했지만, 현장 기사들은 '교통 혼잡이 적고'(43%) '수입이 더 좋으며'(29%) '낮에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22%)는 점 등을 들어 새벽 배송을 선호한다고 했다.

새벽 배송은 2000여 만명이 이용하는 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15조원 규모로 성장한 시장이 멈추면 그 피해는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오죽하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노동부 장관이 "소비자 입장과 산업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겠나.

택배 기사들은 새벽 배송이 주간 근무에 더해 강제로 하는 추가 노동이 아니라, 밤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는 별개의 근무 형식이라며 민노총이 현장 실정을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노총이 실제로는 일하려는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일하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택배 분야만이 아니다. 주요국 중 가장 경직적이라는 주 52시간제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규제가 많다.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자율 주행 등 첨단 산업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일하는 '996 근무제'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의 추격에 놀란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중국식 996 근무제를 속속 도입할 정도다. 그런데 한국은 오후 6시면 연구소 전원과 컴퓨터가 꺼져 더 일하고 싶은 연구원은 근처 카페에 가서 일하는 지경이다.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더 보상받을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의 존엄과 생계를 지탱하는 기본 행위다. 지금 한국은 과로와 착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일할 자유'를 빼앗고, 경쟁과 혁신을 막고 있다. 일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고, 자기 선택권에 따라 더 일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 고용 절벽' 이유 아는 대통령, 노동 개혁 나서길

올해 3분기 15~29세 실업률이 5.1%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네 분기 연속으로 청년 고용이 나빠진 것이다. 실제 청년 고용 상황은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할 생각은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한동안 접은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올해 3분기 15.5%로 공식 실업률의 3배를 웃돌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20대를 많이 채용하는 주력 업종의 채용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인력을 뽑는 기업도 경력직을 선호한다. AI·자동화 확산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채용을 꺼리고 있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아마존이 AI로 생산성이 높아지자 전체 사무직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3만명을 감원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도 곧 닥칠 일이다. 제조 AI 성장으로 블루칼라 직종도 대규모 감원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청년 고용이 어려워진 근본 이유는 따로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사업이 어려워져도 인원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뽑기를 더욱 꺼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꺼리는 배경에 "노조 이슈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예 (직무) 전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말뿐이고 고용 경직성을 개혁하거나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친노조 과제들을 추진하고, 고용 유연성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한다.

현 정부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개편할 의지만 가지면 청년들을 불행과 절망에서 구할 수 있다. 노동 유연성이 마구잡이 해고와 같은 것으로 통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노동 개혁에 나서면 청년 고용 증가로 이어져 이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웰빙 정당》 국민의힘

달라지고 있다 … 장동혁 나경원 김민수 신동욱 등 잘 한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좌익과 제대로 싸우는 《戰士 집단》 추구 | 올드 미디어에 휘둘리지 않고, 뉴미디어 활용 | 지지율 대폭 상승 … 입당 복당 증가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뉴데일리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잘 싸우는 사람 공천하겠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을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 *이념-강단-결기 없는 기회주의 웰빙.* ★ *저질 극좌와 싸우는 사람 따로, 공천 챙겨 먹는 사람 따로.* ★ *결정적 순간마다 배신자가 나와도 책임 추궁 유야무야.* ★ *선거 때만 "도와 달라" 하다 끝나면 외면.* 이런 한심함에도 저질 좌파 견제를 위해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이 마지못해 표 찍어주는 닭갈비 같은 존재가 국힘이다.

이랬던 《*웰빙 정당*》이 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저질 좌익정권과 싸우는 전사(戰士)들이 나오고 있다.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선두는 **장동혁** 대표. **김민수-신동욱** 최고위원과 5선 중진 **나경원** 의원, 국정감사에서 맹활약 한 **박정훈 주진우 박수영 김민전 박충권 최수진** 의원이 뒤를 받치고 있다.

장 대표는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전쟁이자 체제전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우파 신념으로 무장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도 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 **나경원** 의원도 나섰다. "**자유민주주의냐 좌파 전체주의냐의 싸움**이다. 선거 때마다 중도 타령해서 망했다. (좌파 전체주의자들과) **잘 싸우는 사람, 당에 헌신하는 사람이 공천 받아야** 한다." **한동훈**이 국힘 텃밭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공천, 쉽게 금배지를 단 **김상욱 정성국 한지아 김예지**의 한심한 행보를 보면, 이런 메시지는 주목할 만하다.

국힘의 달라진 전투력

장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했다. 국힘계열 당대표가 직접 추모사를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는 또 온갖 비난에도 불구,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다.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 자유우파 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을 임명한 것도 긍정적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동혁 체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탄탄한 논리, 탁월한 언변, 추종 불허 순발력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및 중국인 우대 정책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그를 흠집 내려던 좌파 방송 MBC 기자에 말려들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 《**참교육**》 시키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됐다.

《*추미애 법사위*》에서 활약한 **신동욱** 최고위원,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추악한 민낯을 밝혀내고 ***김현지*** 의혹도 부각시킨 **박정훈** 의원, 역대 탈북자 출신 의원 중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박충권** 의원 등도 주목대상.

필자의 한 지인은 최근 당비를 내는 국힘 책임당원이 됐다. 그는 말했다. "장동혁 체제가 잘하고 있는 만큼 힘을 실어주고, 한동훈-이준석 같은 내부총질 배신자들이 다시 당을 장악하는 일을 막기 위해 투표권 있는 당원으로 입당했다." 《***기회주의 웰빙 배신자 정당***》에 정 떨어졌던 자유우파 시민들이 이처럼 입당-복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지율 추이도 긍정적. 6.3 대선 후 《***윤희숙 류 패배주의-기회주의 혁신 타령***》이 한창일 때 국힘 지지율은 10%대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최근 40% 안팎까지 치솟아, 민주당과 오차 범위 안으로(ARS조사 기준) 좁혀졌다. 서울지역에서 국힘이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조사도 나왔다. 패색이 짙었던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중도 타령 / 국민 눈높이 타령***》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됐다.

올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장동혁 국힘**》은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새 장(章)을 열고 있다. 과거 국힘 계열 정당은 ***좌파나 기회주의에 물든 《올드 미디어》에 휘둘리면서*** 결정적 순간마다 핵심 지지층의 정서에 어긋나는 길을 갔다. 그 결과는 늘 참담한 추락과 실패. 두 차례의 탄핵 정변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하지만 《**장동혁 국힘**》은 올드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지만, 휘둘리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신 자유 애국시민들이 선호하는 우파 성향 유튜브와 온라인 매체 등 《**뉴 미디어**》를 올드 미디어 못지않게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자유우파 온라인 매체 《뉴데일리》 창간 20주년 기념식에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문수** 대선 후보 등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그런 변화에 따른 것.

장 대표, 김민수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나경원 박수영 주진우**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박민영 이재능 김효은** 대변인,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등은 각종 우파 유튜브와 SNS에서 맹활약 중이다.

좌익 전체주의가 폭주하는 지금, 그래도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집단은 누가 뭐래도 비(非) 좌파 야당, 그 중에서도 제1야당이다. ***김현지-최민희-추미애,*** 나아가 정권 차원의 여러 문제들을 국힘 의원들이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장동혁 나경원 김민수 신동욱 박정훈 주진우 박수영 김민전 박충권 최수진 등의 활약이 상징하는 국힘의 긍정적 변화가 더 많은 국힘 구성원들에게 확산되어 당이 《**전사(戰士) 집단**》으로 탈바꿈 하기를 바란다.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1월 1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81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